

위로의 하나님 God of Comfort

본문: 고후 1:1-11

고린도 후서는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후 2:4).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역시 바울처럼 상처를 입기 쉬고, 넘어지기 쉽고, 작은 일로도 실망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고난과 슬픔 속에 빠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특별히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본론

1.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빠질 때마다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3-4 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1)바울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를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8 절 후반-9 절 전반 “...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고후 11:23-27 에서 자신이 겪은 온갖 환난들을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2)또한 바울과 일행들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문 6 절).

물론 바울 일행과 고린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도 무척 많았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이 겪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인들이 흔히 당했던 부당한 대우, 매맞음, 투옥, 혹은 법정에서 무고하게 고발을 당함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든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점입니다.

본문 5 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슬픔에 빠질 때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우리 모두 고난을 당할 때 자비의 아버지이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2.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항상 실제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10 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과거] 또 건지시리라[현재]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미래]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체험했고 그 당시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거듭해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지 말로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들을 확실히 건져내어 풍성한 삶을 제공하며 위로하십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 51:3).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66:13).

우리 모두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3.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까지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4 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 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셨을 때 단순히 자기만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는 위로는 고린도교인들의 위로로 진전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주님의 몸되신 교회(엡 1:23)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제 고통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들은 하나입니다 (고전 12:12-31). 특히 고전 12:26의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즉 바울의 고난과 아픔은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위로의 전령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아도, 사모와 저희 가족을 살펴보아도, 나아가 목회와 사역, 특히 교회와 교인들의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은 수많은 위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로를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위로를 반드시 곧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게 하려는 악한 자의 유혹을 계속해서 이겨내시길 간구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의지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본문 9 절 후반).

그리하여 우리 모두 위로의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빠질 때마다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로하시며 나아가 그 위로가 신앙공동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위로하십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